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신규주택 건설 10월에 예상외 증가
- Bloomberg: 파월의 연준, 견해차 불구하고 인플레이 싸움에 단합

#### [미국 금융]

- Bloomberg: S&P 500, 랠리 후에 다소 흔들려
- WSJ: 해외 민간 투자자와 중앙은행들, 미 국채 30% 소유
- CNBC: 크레이머, “연준 인플레이 싸움 월마트 등에 타격”
- Bloomberg: IMF, “한국, 오랫동안 제약적인 통화정책 유지해야”

####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혼잡세, 교통 혁명 일으킨다’

#### [물류]

- WSJ: 수소연료,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다

#### [에너지]

- CNBC: 석탄 사용량, 탄소 배출량 목표 위해 7배 줄여야 한다
- Finance Yahoo: 추수감사절 앞두고 휘발유가 떨어져

#### [주택]

- Bloomberg: 모기지가 끝난 미 주택 소유자 숫자 사상 최대
- WSJ: 미국,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동산 수수료 비싸다

#### [인공지능]

- Bloomberg: 미 은행들, 성과 보고서 작성에 AI 활용 관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아마존, “사무실 복귀하지 않으면 승진 힘들지도”
- Bloomberg: 애플, 안드로이드와 호환 위해 RCS 기술 표준 도입 계획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New US Home Construction Increased Unexpectedly in October**

##### **신규주택 건설 10월에 예상외 증가**

- 10월 신규 주택 주택 착공이 1.9% 늘어난 연율 1백37만채로 지난 3개월내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단독 주택 건설도 0.2% 상승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 이에 따라 건축 업체들은 재판매 시장에서의 공급 제한으로 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
- 향후 건축을 가늠하는 건축 신청은 1백49만채로 증가했고 단독주택 건축 허용건수도 지난 2022년 5월 이래 최고치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Powell's Fed Sticks Together in Fight Against Inflation Despite Differences

### 파월의 연준, 견해차 불구하고 인플레이 싸움에 단합

- 연준의 인플레이와의 싸움 과정에서 지난 FOMC(연공개시장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이 주도한 조치에 한명의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는 통화정책과 경제 방향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불확실성에 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만장일치를 보였다.
- 그러나 이는 연준이 집단사고에 묶여 있다는 비판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반대 의견이 적은 규범이 생기면 이를 위집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P 500 Treads Water After Its \$2.7 Trillion Rally

### S&P 500, 랠리 후에 다소 흔들려

-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베팅에 힘있어 11월 에 2조7천억달러 규모의 랠리 후에 주식이 흔들렸다.
- 물론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7월 이후 가장 긴 주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과 지수에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이 금요일에 만기되어 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달러도 예상보다 약한 경제 지표로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는 기대감과 달러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베팅으로 달러가 1년만에 매월 단위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 Bloomberg 기사

## WSJ: Where Have All the Foreign Buyers Gone for U.S. Treasury Debt?

### 해외 민간 투자자와 중앙은행들, 미 국채 30% 소유

- 미 국채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있다. 연준은 매달 6백억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고 있다. 과거 중요한 수요처였던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 이들의 매수가 줄어든 것이다.
- 해외 민간 투자자와 중앙은행들은 현재 미 재무부 발행 국채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전의 43%에서 줄어든 수치다.

- 반면에 공급은 폭발적이다. 미 재무부는 올해 신규 국채를 2조 달러 규모 발행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차입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WSJ 기사

### **CNBC: Cramer says the Fed's efforts to squash inflation are now hurting stocks like Walmart** 크레이머, “연준 인플레이 싸우 월마트 등에 타격”

- CNBC의 주식 전문가 Jim Cramer는 연준의 인플레이와의 싸움에 미국 경제에 승리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 그러나 그는 월마트와 Palo Alto Networks 등과 같은 회사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예컨대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통해 높은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했지만 이제 더 신중해진 소비자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격 하락이 마침에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끝내는 좋은 소식이지만 많은 기업들의 수익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 **Bloomberg: South Korea Should Keep Monetary Policy Restrictive, IMF Says** IMF, “한국, 오랫동안 제약적인 통화정책 유지해야”

- IMF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관은 또한 통화당국은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그들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외환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여건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1.4%, 내년 2.2% 성장하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말까지 2%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과 일치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 **Bloomberg: NYC Congestion Pricing Could Unleash a Transportation Revolution** ‘맨해튼 혼잡세, 교통 혁명 일으킨다’

- 맨해는 다운타운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혼잡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미 교통개선 실험중에 가장 큰 조치다.
- 이같은 조치로 맨해튼 중부지역에 교통 혼잡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의 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된다.
- 또한 뉴욕 교통공사 MTA는 현재 장거리 기차 노선인 메트로-노스 및 롱아일랜드 기차 노선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승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뉴욕시 혼잡 요금제의 효과를 예상하면 평일 최대 4만5천명의 추가 승객이 MTA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 [물류]

#### **WSJ: Hydrogen Fuel Is Gaining Traction With Truckers** 수소연료,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다

- 트럭 운전자 중에 많은 이들은 거대한 트럭에 사용될 수 있는 전기 배터리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 수소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가 제로 탄소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소 트럭 지지자들은 트럭에 무거운 전기 배터리를 실지 않아도 돼, 수소가 전기 배터리 기술보다 더 장기간의 운행에 효과적이며, 더 빠른 연료 보충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수소 차량 기술의 발전과 수소 충전 기반 시설은 전기 트럭보다 몇 년이나 뒤쳐져 있으며, 수소 트럭 관련 규제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WSJ 기사

### [에너지]

#### **CNBC: Coal use needs to be slashed seven times faster to meet emissions target, analysis finds** 석탄 사용량, 탄소 배출량 목표 위해 7배 줄여야 한다

- 새로운 보고서("State of Climate Action 2023")에 따르면, 석탄 사용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목표는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2030년과 2050년의 계획도 1.5도 이상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관련 42개 지표 중에서, 2030년의 지구 온난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는 전기 자동차가 유일하다.

- 유엔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섭씨 1.5도를 '상한선'으로 둔 바 있다.

CNBC 기사

### FinanceYahoo: Gas prices slide ahead of Thanksgiving week 추수감사절 앞두고 휘발유가 떨어져

-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금요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갤런당 3달러33센트로 한달전의 3달러58센트보다 줄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이 현재 보다 더 떨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주 초에 11개주는 평균 가격이 3달러 미만, 14개주는 3달러 1센트에서 3달러 25센트 사이에 머물렀다.
- 가격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의경우도 갤런당 5달러 2센트로 약간 내렸다.

Finance Yahoo 기사

### [주택]

### Bloomberg: The Share of Americans Who Are Mortgage-Free Is at an All-Time High 모기지가 끝난 미 주택 소유자 숫자 사상 최대

- 모기지가 없는 미 주택 비율은 지난 2012년 부터 2022년까지 5% 늘어나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 연령에 이르렀다.
- 또 이들중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율이 낮았을때 채용자한 베이비 부 모세대들이다.

Bloomberg 기사

### WSJ: Almost No One Pays a 6% Real-Estate Commission—Except Americans 미국,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동산 수수료 비싸다

- 미국에서 집을 사고파는 방식은 세계와 비교하면 평범하지 않다.
- 주택 판매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5%에서 6%이며, 이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인이 나누어 부담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런 수수료가 상당히 작다.

- 투자 은행인 Keefe, Bruyette & Woods에서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Ryan Tomasello는 미국의 부동산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구매자 중개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구매자 중개인이 다른 국가의 중개인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구매자 중개인의 역할은 자문과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점검인과 대출 기관 그리고 변호사 추천까지 맡아 커지고 있으며,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 주택 구입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 이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 Keefe, Bruyette & Wood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중개 수수료는 5.5%로, 일본의 6.2%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6%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높다. 노르웨이는 1.8%, 영국은 1.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동산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다.

WSJ 기사

## [인공지능]

**Bloomberg: Wall Street Bosses Turn to AI to Help Write Performance Reviews****미 은행들, 성과 보고서 작성에 AI 활용 관심**

- 은행들이 이미 파생상품 거래와 사기 범죄 대응에 AI를 이용하고 있다.
-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HR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Workday에 따르면, 이제는 연말 보고서 작업에도 인공지능이 사용될 예정이다.
- Workday는 지난 9월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은행들이 이에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 설명을 작성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은행들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 공감하는 추세다.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이 기술이 주당 근무일을 3.5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1분기 말까지 자사의 프로그래머들에게 AI 활용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Amazon says employees may not get promoted if they ignore return-to-office mandate****아마존, “사무실 복귀하지 않으면 승진 힘들지도”**

- CNBC가 확인한 아마존 내부 공고에 따르면, 아마존이 자사의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아마존의 사무실 복귀 정책은 직원들이 한 주에 적어도 3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아마존이 사무실 복귀 정책을 시작한 이후, 아마존과 약 35만 명의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5월에 아마존의 첫 사무실 의무 복귀 정책 이후, 일부 직원들은 시애틀의 본사에서 시위하기도 했었다.

CNBC 기사

## **Bloomberg: Apple Plans to Make It Easier to Text Between iPhones and Androids**

### **애플, 안드로이드와 호환 위해 RCS 기술 표준 도입 계획**

- 애플이 내년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의 원활한 메시지 송수신을 위해 기술적 표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 기존에 애플은 구글과 다른 기업들이 RCS라고 불리는 이 기술 표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 애플이 RCS를 도입하게 되면, 애플 제품의 사용자들은 모바일 통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메시지 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비디오나 사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연준 쿡 이사 "긴축 금융환경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 목표 2% 도달까진 시간 걸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매우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인해 경제 일각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지적하면서 과도하게 급격한 경기침체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정책 콘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에 의한 긴축적인 금융환경으로 나타나는 긴장 조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저축 감소, 소상공인 차입비용 증가, 주택 부문의 수요 둔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연준)는 현재 진행중인 긴축 통화정책의 완전한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소기업과 주택 부문, 저·중간 소득 가구가 보다 광범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